

학폭예방 · 위기학생지원 종합대책

도교육청, 관계·회복·자치 중심 학교문화 혁신으로... '5대 분야 20개 중점과제' 발표

전북도교육청은 관계, 회복, 자치 중심 학교문화 혁신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학생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학부모, 도교육위원회 의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지원 단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교사, 교장, 전문상담교사, 담당 장학사(관)로 구성된 TF에서 10차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정부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은 응보적 시점이 사안처리 원리로 작용함에 따라 학교의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 심화, 불신 누적으로 인해 학교의 교육적 역할 축소와 교육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위기학생의 증가로 인해 학교적응력 향상을 통한 위기학생 발생 최소화 방안과 상담·치유·회복 등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더불어 자살(해), 성 사안 발생에 따른 유관 기관 협력체계 강화, 즉각적인 위기개입 시스템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위기관리 대응 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2017년 전라북도의회 학교폭력예방과 위기학생지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 요구를 담아서 사안처리 중심·처벌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대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초기 개입역량 부족

등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대책은 '평화롭고 따뜻한 교육공동체 구축'을 비전으로, 5대 분야 20개 중점과제가 설정됐다.

5대 분야는 ▲관계, 회복, 자치 중심의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교육력 회복중심 학교폭력과 대책 ▲피·가해학생 상담, 치유, 회복 강화 ▲자살(해), 성 사안 등 위기개입 역량 강화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영으로 정하고, 세부 20개 과제를 설정하여 신규 사업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사업 확대, 개선으로 내실 있는 대책을 수립 하였다.

세부과제는 ▲3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담임중심, 회복적 생활

교육 및 상담역량 강화 ▲교육력 회복 중심으로 분장조정과 사안처리 ▲사이버폭력 예방 대책 강화 ▲상담, 치유, 회복 관련 연수 지원 강화 ▲학교-지역청·도교육청 위기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위기학생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자문의사단 구성, 운영 ▲내실 있는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 등이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종합대책을 새 학기부터 학교에 안내하고, 도교육청-교육지원청-단위학교가 관계·회복·자치 중심 학교문화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위기학생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교육대학교 학위수여식

전주교육대학교(김우영 총장)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전주교대 황학당에서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교육학사 296명, 교육학석사 81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으며, 김우영 총장을 비롯해 내·외빈, 학부모, 교수 및 교직원 등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다.

김 총장은 축사에서 "대학생활 4년 동안 쌓아왔던 추억을 항상 간직하며, 교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공이 아닌 성장을 위한 꿈, 혼자가 아닌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내빈축사에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직생활을 하는 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 주는 교사가 되어주시길 바란다"며 격려하고 교사의 도우미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졸업생들에게 약속하였다.



전주교육대학교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전주교대 황학당에서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 완산도서관 운영위 열어

전주시 완산도서관은 21일 민선식 기획조정국장과 김정자 도서관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도서관운영위원과 관계 공무원 17명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1차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가칭 중화산도서관에 대한 명칭 제정의 건 △전주 북서대전 기본 방향과 민관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채규남 기자

부안여상 → 서림고 교명 변경

군산남고 → 한들고로

3월 1일자로 학교구성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 교명이 서림고등학교로, 군산남고등학교는 한들고등학교로 변경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북 도립학교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21일 전북도교육청은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를 기존 특성화고에서 올해

부터 일반고로 유형을 전환하면서 3월 1일자로 서림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림은 '부안의 옛 명칭'이면서 부안지역 문인과 학자들이 토론하던 곳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군산시 대야면에 위치한 군산남고등학교가 대야(大野)의 순 한글이름인 한들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한다. 한들고등학교는 큰 들에 자리

잡은 고등학교, 큰 들에서 큰 꿈을 펼치는 고등학교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주 예곡시터개발지구 내에 3월 1일자로 전주화정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개교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임시 휴교중인 익산 소재 금성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은 이번 달 28일자로 폐교하기로 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대 박물관 '민화 아카데미' 운영

23일까지 1학기 수강 신청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김성규)이 박물관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 밀착형 아카데미 개설의 일환으로 2016년 시작된 '민화 아카데미'가 올해 3기 과정이 운영된다.

1·2학기 각 15주 과정으로 초·중·고급반으로 운영되는 이번 강좌에는 2014년 제30회 대한민국전통미술대전에서 전통공예 대상을 받은 유안순 작가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민화 교육을 한다.

수업은 3월부터 매주 화요일에 실시되며, 수업 작품들을 모아 내년 1~2월 경 작품 전시도 할 예정이다.

또한 30주를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민화 아카데미 수료증을 교부하고, 박물관 문화·교육 활동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전북대는 오는 2월 23일까지 1학기 수강 신청을 받는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2명이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70-3658)나 전북대 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jnu.ac.kr/>)를 참고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도교육청, 학교자치활성화 지원단 운영

교육자치의 정착지는 학교이고, 학교자치가 이루어지는 학교는 민주시 민교육을 할 수 있는 육토가 되어 학교민주주의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학교자치는 단위학교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고, 구성원들이 학교의 고유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의 지방자치실현과 학교자치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자치활성화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우선 유·초·중·고 학교 급 별 교장, 교감, 교사들로 이루어진 교원위원들이 지난 2월19일 함께 모여 지원단 연수를 실시하였다. 시작은 다년간의 체험과 사유로 학교 내 폭력과 학교운영의 해답은 학교자치가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는 이항근 교육장(전주교육지원청)의 제언을 담은 강의로 열었다. 이후 학교에서 필요한 지원방법에 대한 지원단의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활성화 지원단은 학교구성원의 학교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방법을 고안하고 개선하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작동할 수 있는 학교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